

“진안 발전 위한 민주당 ‘원팀’ 총력”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후보자 일동, 합동 기자회견 개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후보 9명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강력한 정책 연대와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를 비롯한 전운태 도의원 후보, 군의원 후보 등 9명의 출마자들은 2026년 18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 발전과 지방선거 완수를 위해 공고한 민주당 ‘원팀(One-Team)’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합동 기자회견은 진안군 민주당 후보 9명이 빠짐없이 모두 모여 전열을 정비하고 견고한 결속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회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전운태 전북도의원 후보와 함께 군의원 가 선거구 후보(김기호, 박상일, 김민규), 나 선거구 후보(이미옥, 김명갑, 박관승, 한효임, 비례대표 후보까지 9명의 후보가 전원 참석하여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후보자 일동은 “이번 선거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어 민생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궁극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후보 9명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강력한 정책 연대와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후보들은 진안군의 핵심 해법이자 미래 비전으로 ‘진안형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거, 교통, 소득, 의료 등 국민 삶의 기본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진안형 기본사회’를 만드는 데 9명의 후보 모두가 전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간의 긴밀하고 강력한 ‘정책

연대’를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9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오직 진안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단한 ‘원팀’으로 뭉쳐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진안의 확실한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11명 선정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총 11명이 최종 선정되며 미래농업을 이끌 핵심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는 6명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는 5명이 각각 최종 선

정됐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6명은 독립 영농 3년 이하의 초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정착 초기 단계에서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농지 확보, 정책자금, 기술교육 등 영농 기반 구축에 필요한

종합 지원도 함께 제공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경영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 5명은 연 1.5% 저리 정책자금 융자와 함께 1인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자금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영농 규모화와 전문경영체로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체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방역기동반 발대식·직무·안전교육 가져

진안군은 18일 보건소 강당에서 2026년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동반 발대식 및 직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방역기동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낭독과 함께 본격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공식화했다. 참석자들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펼

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여름철 증가하는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 이후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이 이어졌다. 방역소독 장비 사용법, 약품 취급 요령, 모기 발생지 조사 및 방제



진안군 방역기동반 발대식·직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안전 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개인 보호구 착용법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썼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무주산골영화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 제공

무주군이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문화·체험형 콘텐츠를 새롭게 추가하며 관광과 기부를 결합한 지역 활성화 전략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문화·체험형 답례품으로 ‘무주산골영화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무주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열리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활용 가능하다.

등나무운동장은 무주산골영화제의 핵심 공간으로 개막식을 비롯해 야외 영화 상영과 각종 공연이 진행되는 대표 행사장이다.

기부 참여자는 초여름 자연 속에서 영화와 공연,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무주민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은 이번 답례품 구성을 통해 단순한 지역 특산품 제공을 넘어 무주산골영화제라는 대표 문화자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문화관광형 기부 모델을 강화하고



무주군, 무주산골영화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 제공

있다. 무주군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전북은행 본점을 찾아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활동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방법과 세액 공제 혜택, 무주군 답례품 등이 안내됐으며 전북은행 임직원 80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현재 무주군은 산골영화제 입장권 외에도 반딧불이 신비탐사권,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할인권, 호두말이 꽃감, 머무와인 등 총 70종의 다양한 답례품을 운영하며 ‘K-관광수도’, ‘자연 특별시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 전역에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행복마차’를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복마차’

장수군,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기대

장수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 전역에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행복마차’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마차’는 냉동탑차를 개조해 운영하는 이동형 복지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대행,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전기시설 수선 등 생활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수군 특화사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2023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기존 장수읍에만 시행되던 ‘행복마차’ 사업을 지난해부터 7개 읍면 전역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지역 내 34개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행복마차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찾아가는 안부 확인’을 통해 고립기구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보건의료원, 약국 운영 실태 지도·점검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 구매·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약국 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시 강화와 의약품 안전 판매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군은 보건약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장수군 관내 약국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약사 명찰 패용 여부 △약국 등록증 및 약사 면허증 게시 상태 △의약품 가격표시 적정 여부 △마약류 보관 및 관리 상태 △전문약품 판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마약류의 경우 구분 보관과 잠금장치 관리 여부, 재고 상태, 점검부 작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가격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며 군민들의 알 권리 보호에도 힘썼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 운영

진안군은 지역 간 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입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진안군 진로진학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군은 지역외통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진로진학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학생들의 이공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학교 방문형 컨설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 일정과 별도로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 신청도 운영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